



공립미술관 경쟁력 소장품 구입 예산 '찬밥'

도 문화예산 2% 미만 속 공간 운영 핵심 비용 줄여 김창열미술관은 예산 전무 기준없이 공간별 들쭉날쭉 중·장기 수집 계획 세워야

2020년도 문화예산 1221억원보다 244억원이 감소했고 전체 예산 대비 비율도 전년도 2.45%보다 하락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 올해 7개 공립 미술관 소장품 구입 예산은 천차만 별이다. 아예 소장품 구입비가 없는 곳도 있다.

미술관별로는 제주도립미술관이 2억원으로 전년도 편성 기준 5억5000만원보다 절반 넘게 감소했다. 제주현대미술관은 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000만원이 줄었다. 제주추사관은 지난해와 동일한 3000만원이 편성됐다. 서귀포시의 이증섭미술관은 이증섭 원화 작품과 자료 구입비가 2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10억원보다 무려 7억5000만원이 감소했다. 기당미

술관은 3000만원으로 전년(610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소암기념관도 3000만원으로 작년(3500만원)보다 깎였다.

더욱이 제주도 문화정책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김창열미술관은 소장품 구입비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미술관 측은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펴낸 '2020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제주는 인구당 미술관 수가 전국 상위를 달리지만 1개관당 평균 소장 자료는 공·사립을 합쳐 294점으로 가장 적었다. 도내 공립미술관 소장 자료는 2020년 1월 기준 제주도립미술관 825점, 제주현대미술관

472점, 기당미술관 672점, 이증섭미술관 270점, 소암기념관 667점, 제주추사관 161점, 김창열미술관 232점이다. 전국 공립미술관 1개관당 평균 소장 자료는 986점이었다.

"미술관의 힘은 컬렉션에 있다"는 도내 공립미술관 관계자의 말처럼, 소장 자료는 공간의 빛깔을 드러낸다. 미술관마다 작품 수집 방향을 세우고 매년 일정하게 예산을 투입해 매입 등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제주 공립미술관의 현실은 그와 동떨어져 있다. 미술관별 소장품 구입비 책정 기준이 없는 만큼 7개 공립미술관 특성에 맞춘 중·장기 수집 계획 마련이 요구된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먹빛에 끌린 30여 년 필묵 여정을 담다

김미형 서예가 서화집 발간 한문·한글·문인화 등 수록 "새 마음으로 다시 붓 잡을 것"

2011년 두 차례 개인전을 가졌고 제주문인협회전, 일본 국제 서예·수묵화 교류전 등 단체전에도 다수 참여했다. 한국문인협회 제주지회장, 한국서예협회 제주부지회장을 거쳤고 현재 제주도서예문인화총연합회 대표회장, 상목회 고문으로 있다.



전시장이 아닌 서화집을 통해 지상으로 나누는 작품이지만 운필, 터치, 발묵, 색감 등 기본적인 기법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퇴계선생 수신십훈'은 한글로 번역된 내용을 판본체로 작품화했다. 문인과 수록작 일부는 그림과 어울리는 간결한 내용의 화제를 덧붙여 이해를 돕는다.



김미형의 '녹수홍련(綠水紅蓮)'

이번 서화집에는 서른 해 넘게 붓 하나로 일구는 서화예술의 세계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수록 작품은 2000년 '반야심경'에서 2020년 '늘푸른 기상'까지 140점이 넘는다. 전서·예서·해서·행서·초서 등 한문 5체와 한글 작품, 담박한 필치가 느껴지는 문인화 작품을 볼 수 있다.

김미형 서예가는 "언제인가 넘버원이 아닌 온리원이기를 꿈꿔왔다는 다짐도 흐르는 시간에 조금씩 식어가지

만 용기를 내어 상재한다"며 "이번의 출간으로 필묵 여정을 갈무리하고, 열정의 불씨를 다시 끄집어내어 마음의 쉼터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붓을 다시 들어볼까 한다"고 했다. 전선희기자

계간문에 '다충' 겨울호

제주에서 만드는 계간문에 '다충' 겨울호(통권 88호)가 나왔다.

이번 호 기획특집은 '2020 올해의 좋은 시와 시조'다. 올해의 좋은 시집은 김효선·김희준의 시집을 올렸다. 좋은 시조집은 이송희·이토록의 창작집을 택했다. 좋은 시와 좋은 시조도 만날 수 있다. 좋은 시와 시조에 대한 총평은 김규린 시인의 '죽음의 몇 가지 단상', 정희경 시인의 '마주하는 세계, 추구하는 세계'에 각각 담았다. 젊은 시인 7인선, 젊은 시조시인 3인선도 소개했다. 다충소시집은 권성훈 시인의 신작시로 꾸렸다.

제주문협 '제주문학' 겨울호

제주문인협회(회장 고운진)가 세계의 특징으로 '제주문학' 겨울호(제85집)를 냈다.

특집 첫 번째는 '제주야행'으로 제20회 제주문학상을 수상한 김순이 시인의 삶과 문학을 조명했다. '제주바다는 소리쳐 울 때 아름답다' 등 수상자의 작품도 실었다. 두 번째 특집은 제26회 제주신문문학상으로 꾸며 시 김승현, 동화 윤복희의 작품과 수상소감을 수록했다. 세 번째 특집에선 고양문인협회 초대 작품을 소개했다. 박미운의 단편 등 회원 작품도 다채롭게 실렸다.

'제주작가' 겨울호 발간

사단법인 제주작가회의(회장 강덕환)가 계간 '제주작가' 2020년 겨울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 특집은 '코로나 시대와 제주예술', '고 오시로 다쓰히로 소설가를 추모하며' 두 개다. 첫 번째 특집에서는 재난 상황에 처한 제주 예술 상황을 되짚어 보며 앞으로 코로나 이후 예술의 방향을 모색했다. 두 번째 특집엔 오키나와를 넘어 새로운 세계문학의 가능성을 보여준 고인과의 추억 등을 담았다. 김시종 시집 '일본풍토기' 여섯 번째, 2020년 신인상 강경태의 소설도 실었다.

한수품문학회 연간지 15호

한수품문학회(회장 신희자)가 연간지 '문득 섬이 되는 날' (15호)을 묶었다.

이번 호 특집은 두 개다. 특집 I은 '시로 여는 손바닥선인장'으로 손바닥선인장 자생지인 월령리를 탐방하고 창작한 시 14편을 담았다. 특집 II에서는 한수품문학회 창단 회원이자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양영길 시인의 문학과 삶을 조명했다. 원담 축제 시화전, 시낭송회 등을 열어온 한수품문학회는 시, 시조, 수필 등 2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고재만의

제주어 그림판

<237>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오맹이 골맨. "누님- 허디 글음서, 누님이 넘어 재기 걸업신개마춤. 좇아가질 못 허쿠다. 걸음이 어떻 경 볼루우파게."
준네 골았저. "오맹이야- 알았저. 경허주만 심 내영 재게재게 글라. 날 어 들기 전이 멍겨와사 뉘겨게. 부름도 불업신개, 췌 눈도 오람적 허난 허 술 춤으멍 걸으라. 저디 누단작판터래 뉘러보라. 초집 소금이 큰 멧돌 이시네? 저디가 뉘방앗간이여게. 뉘방에 돌리는 디주. 봄이오쿠 으름 이 뉘민 보리영 하간 곡석을 골기도 허메. 뉘을 사름덜이 수놀멍 심 모두왕 부지란이 곡석을 장만 허구 허느네."

* 제주어 풀이

- * 허디 글음서: 같이 가게요.
- * 재기 걸업신개마춤: 서둘러 걷고 있네요.
- * 못 허쿠다: 못 하겠어요.
- * 뉘러다(뉘러다): <그림>빠르다.
- * 어떻 경 볼루우파게: 어떻게 그리 빨라요.
- * 심 내영 재게재게 글라: 힘을 내어 서둘러 가자.
- * 멍겨와사 뉘겨게: 다녀와야 되겠다.
- * 춤으멍 걸으라: 춤으면서 걸어라.
- * 뉘방앗간: 연자매가 설치된 집.
- * 뉘방에 돌리는 디주: 뉘방이 돌리는 곳이지.
- * 수놀다(수놀음): <움직> 품앗이하다. 일꾼들이 서로 도와 줄 일의 차례를 정해서 그 계획에 따라 돌아가면서 서로 일을 도와 주다.

고재만 화백

공공도서관 '집콕 즐기기'

우당도서관 그림책 수업 탐라도서관은 고전 읽기

제주시 지역 공공도서관들이 코로나 19에 따른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이용자들과 만난다.

우당도서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연계한 겨울독서교실 '집콕! 그림책과 함께 생각 나눔!'을 마련했다. 제주 오승주 작가와 '전쟁', '독재자 프랑코', '착한 괴물 쿠마', '토끼들' 등 그림책을 함께 읽고 축제 시화전, 시낭송회 등을 열어온 한수품문학회는 시, 시조, 수필 등 2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증을 활용할 수업으로 실시된다. 문의 728-8341.

탐라도서관도 온라인을 활용해 매월 작가가 선정한 한 편의 고전을 수강생들과 함께 읽고 강연을 통해 해석을 공유하는 '열두 달 고전 읽기'를 진행한다.

참여 작가는 1월과 2월 박준 시인, 3월과 4월 노명우 작가, 5월과 6월 정여울 작가, 7월과 8월 김현 시인, 9월과 10월 김탁환 작가, 11월과 12월 김은석 교수 등 6명이다. 1월의 고전은 '백석 평전'(안도현, 다산책방)으로 1월 30일 오후 2시부터 랜선 강연이 이뤄진다. 참가자는 매일 10일부터 제주도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시민 4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문의 728-8371. 전선희기자

축
CONGRATULATIONS
승진
사무관

함우혁 (27회)

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함덕중학교총동창회
회장 박창범 외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수훈
녹조근정훈장

慎鏞碩
(居昌慎氏 奈判公派 32世)
부: 故 慎仁範 · 모: 故 盧愛鏡

녹조근정훈장 수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居昌慎氏 濟州花樹會
회장 신유길 외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수상
행정안전부장관표창

강형택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라동지역자율방재단 일동

축
CONGRATULATIONS
수상
대통령표창

강용숙
(서귀포시 기획예산과장)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5인회
(부 실·양대년·오대효·고방협)